



| | | | |
|---|---|---|---|
|  인천광역시 | 보 도 자 료 | |  |
| | 배포일자 | 2023 8 9 () 총 3 회 | |
|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실 | 담 당 자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팀장 이규석 ☎ 40-2131 • 당자 표선정 ☎ 40-2133 • 당자 이인경 ☎ 40-2134 </div> </div> | |
| 사진(이미지)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 | |
| 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유정복 시장, 벨기에 대사와 잼버리 참가자 지원 현장 살펴

- 연세대 국제캠퍼스 방문해 현장점검 및 간담회 개최 -

인천시가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장을 떠나 인천지역 숙소에 입소한 참가단 지원을 위해 현장점검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벨기에 등 잼버리 참가자들이 입소한 연세대 학교 국제캠퍼스를 찾아 기숙사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 등을 격려했다.

또한 이날 벨기에 참가단을 격려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를 방문한 프랑수아 봉땅 주한 벨기에 대사와 이진우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 한태준 겐트대 총장 등과 함께 잼버리 기숙사 입소 관련 간담회를 갖고 벨기에 스카우트단 기숙사 시설을 둘러봤다.

현재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에는 28개국 1,729명이 입소해 있는데, 이중 벨기에 스카우트단은 가장 많은 규모인 1,197명이 입소했다.

인천시는 잼버리 참가단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TF)을 구성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문화·관광 체험 프로그램 편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과 벨기에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6.25 때 벨기에에서 많은 인원의 용사들이 참전했고 여러 분야 특히 겐트 대학이 있어서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돈독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며 “인천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잘 마무리를 해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 인천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길 바란다” 고 말했다.

프랑수아 봉땅 주한 벨기에 대사는 “물심양면 지원하고 준비해준 인천에 감사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해 줘서 감사하다” 며 “인천은 스마트도시이기 때문에 벨기에 방문단이 송도읍 방문할 때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관련사진〉 첨부

※ 그외 사진은 행사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미디어’→ ‘포토인천’→‘포토시정’(<https://tv.incheon.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